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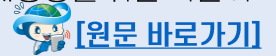
베트남 투자뉴스

KOTRA 해외시장뉴스 · 무역관 뉴스



다낭, 베트남 최초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향후 전망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인 다낭은 뛰어난 입지조건,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높은 내수 성장잠재력으로 베트남의 새로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이며, 중산층의 성장과 활기찬 스타트업 문화는 진출기업 및 잠재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다. 2024년 6월 개최된 베트남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에서 다낭시 발전을 위한 특별 시범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 설립 프로젝트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향후 다낭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낭시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인도차이나 반도 4개국을 가로지르는 동서경제회랑(EWEC)이 동쪽 끝에서 태평양과 만나는 종착지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을 남북으로 잇는 1번 국도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낭시는 아세안의 주요 물류 허브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다낭시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은 관광 및 서비스업이며 제조업 및 물류 관련 인프라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경제 규모의 68% 이상이 관광을 포함한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탄탄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 ...



베트남 의료 시장, 사립병원의 기회와 전망

베트남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UNFPA(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베트남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1.9%에서 2023년 13.8%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Statista는 2024년까지 베트남 병원 시장의 매출이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다른 ASEAN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209억5000만 달러)와 태국(105억9000만 달러)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싱가포르(92억 1000만 달러)와 말레이시아(84억4000만 달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이 병상비율, 의사밀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도시 최전선 공립병원의 과밀화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10명으로, 같은 해 전 세계 평균인 17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들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 여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향상된 의료시설, 짧은 대기 시간, 맞춤형 케어를 요구하고 있다. ...



* 사진 클릭 시 원문 기사로 이동



‘외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베트남내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화 추진

베트남은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대표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 발표. 이 초안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상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국내에 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해야 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은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되며, 결제중개 및 상품배송 서비스 제공도 금지됨.



보험업계, 2025년까지 일부 목표 달성 실패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21~2030 사회경제적발전계획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률 15%, GDP 대비 평균보험료 지출 3.5%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약 1,2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이는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



베트남의 2024년 실업률 2.24%로 하락

지난해 베트남의 고용시장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명대를 기록. 4분기 실업자는 약 105만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 실업률은 2.22%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감소했으며, 도시지역 실업률은 2.37%로 3년 연속 3% 미만을 유지. 그러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7.96%로 0.34%포인트 상승하며 우려를 낳고 있음.



베트남, OECD 가입 추진과 협력 강화

베트남은 2045년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OECD 회원국이며,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입 추진 중. 베트남이 OECD에 가입하면 동남아 최초의 회원국이 되지만, 정식 가입까지는 수년간의 평가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베트남, 전국 지자체 GRDP(지역내총생산) 목표 최소 8% 할당

베트남 정부는 올해 각 지자체의 GRDP 성장률 목표를 최소 8%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률을 최소 8% 달성하여 2045년 고소득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음. 정부는 산업생산, 관광, 소비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 추가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제도 및 정책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 재정부부는 연간 세출에서 정가지출 비중을 60%로 줄이고, 개발·투자비중을 31%로 늘릴 계획임.



베트남 경제지표 (USD 백만 / 증감률 %)

FDI 국별(1988.1.1.~2024.12.20. 누계)

- 한국 92,001 (10,102건)
- 싱가포르 83,132 (3,914건)
- 일본 77,660 (5,489건)

FDI 산업별(2024.12.20. 기준 누계)

- 제조, 가공 308,763 (17,854건)
- 부동산 경영 73,175 (1,217건)
-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41,927 (197건)

수출입 현황(2024.12. 누계)

- 수출 405,500
- 수입 380,700

한-베트남 교역 동향(2024.12. 누계)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48,256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23,665
- 무역수지 24,591